

순창군 양종철 주무관,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 수상

주민불편 최소화 하기 위한 헌신적 업무처리 태도 '결실' 맺어

순창군 환경수도와 양종철 주무관(시설 7급)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종철 주무관은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통해 오지 주민들에 대한 물 복지 향상과 소규모 수도시설과 지방상수도 공급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비상 관정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급수여건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수도 사고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헌신적 업무처리 태도도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상은 지난 1일 3층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종철 주무관은 "순창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큰 상을 받은 것 같다"면서 "상의 무거운만큼이나 앞으로는 군민들에게 더 헌신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공직자의 길을 걸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주무관은 지난 2005년 공직에 임명한 뒤 농촌개발과, 환경수도과에서 군의 꾀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평소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알려



순창군 환경수도와 양종철 주무관(시설 7급)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져 있다. 특히 원만한 성격으로 동기는 물론 직자다 선·후배 사이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공

/순창=이양원기자



순창군, 섬진강에 토종 붕어 5만5000마리 방류

순창군이 적성면 섬진강변에 토종 붕어 5만 5000천마리를 방류해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1일 적성면 마실편선 앞 섬진강변에서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적성면 강경마을 주민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 붕어 종자 방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류한 어린 붕어는 전라북도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자체관리 중인 3년 된 성숙한 붕어 어미로부터 산란기에 수정란을 확보해 약 64일간 사육관리를 통해 4cm 이상까지 성장시킨 우량종 붕어다.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장군목 일원에 토종 붕어를 방류하면 내수면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생태계 복원은 물론 농어업인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토종붕어 서식지 조성을 통해 장군목 일대 생태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방류행사는 서식환경 변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토종붕어 서식지 복원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면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내수면 어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의료원, 건강생활실천 교육 실시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1일과 2일(1차), 13일과 14일(2차) 2회에 걸쳐 튼튼한 몸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운동부족을 해소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발육을 도와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건강 영양 교육, 심폐소생술 운동교육 등을 실시한다.

보건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아동센터 특성에 맞는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영 원장은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 주고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부안서 하계방학 중 청소년 일탈행위 근절 발 벗고 나서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 여성청소년계(여청계장 김세화)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 및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려고 관내 격포·변산·고사포 해수욕장과 및 PC방·노래방·학원가 등 청소년 주요활동지역을 방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부안서는 지난 1일 여성청소년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지 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은 변산 해수욕장에서 피서지를 방문한 방문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 유형, 신고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물품(물티슈·방수팩·호루라기)을 배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순창경찰서 - Wee센터, 모범 청소년과 공감 힐링 여행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와 순창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018년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모범청소년과 힐링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에 있어 풀럼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날 오전에는 학생들과 담양 관내 아외수영장에 찾아 무더운 더위를 한방에 날릴 수 있도록 물놀이를 즐겼으며, 오후에는 순창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청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어르신 간식 옥수수 수확 행사

김제시 청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태석)는 지난 1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특화사업인 옥수수 수확행사를 갖고 수확한 옥수수를 그룹-홈 경로당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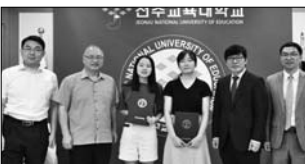
이번 옥수수 수확은 이웃과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자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파종하고 정성들여 재배한 관내 어르신 간식용 옥수수 경로당과 그룹-홈 29개소에 전달하였다.

오태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직접 수확한 옥수수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보람된 하루였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 남성교회, 전주교대에 대학발전기금 기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지난 1일 전주 남성교회(대현예수교장로회)가 2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 남성교회는 1955년 전주 서문교회에서 개척된 이래 전주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해왔고, 약60여년 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배려를 지속해왔다고 알려져있다.

이번 남성교회에서 기탁한 기금은 지정된 2명의 학생(컴퓨터교육과 이다희, 윤리교육과 유나영)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김재훈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 영 군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